

OECD/DAC

제11차 원조효과 작업반 회의(4.2-3) 결과

2008.4.2(수)-3(목) 이틀간 파리에서 제3차 아크라 각료급회의(9.2-4) 의제 및 진행 일정, 주요 배경 문서 및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아크라행동계획(Accra Action Agenda : AAA) 1차 초안이 검토되었다. 2005년 채택된 파리선언을 단순히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성과와 실패 사례, 원조 효과를 저해하는 장애물 등을 내설 있게 검토하여 원조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담은 아크라행동계획이 도출되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금번 회의를 계기로 각국의 아크라 각료급회의 준비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0년 DAC 가입을 준비하는 신흥공여국인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아크라회의의 핵심적인 산출물인 아크라 행동계획(AAA) 작성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정리 : 정책연구실]

I. 핵심요지

- 아크라 각료급 회의 의제 및 진행 일정, 주요 배경문서(파리선언 설문조사, 파리선언 평가보고서, 원조효과 성과보고서 등) 및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아크라행동계획(Accra Action Agenda : AAA) 등 초안이 1차적으로 검토됨.
- 회의 참석자들은 아크라 회의가 2005년 채택된 파리선언을 단순히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성과와 실패 사례, 원조 효과를 저해하는 장애물(bottleneck) 등이 내설 있게 검토되어

원조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담은 아크라행동계획이 도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함.

- 특히, 유럽지역 공여국을 위시한 다수 참가국들은 사무국이 제시한 AAA 초안이 정치적 메시지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야심찬(ambitious) 방안이 포함되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
- 전반적으로 수원국들이 요구하는 6개 분야(주인의식, 원조조건부여(conditionality), 능

력개발, 원조의 예측성, 원조의 보완성 및 분업, 인센티브)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되 추가적인 요소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폭넓게 제기됨.

- 우리 측은 OECD/DAC가 분류한 non-DAC 국가 분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원조분업(division of labour)에 대한 논의가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입각한 공여국 시각에서가 아니라 수원국 필요의 관점에 기초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일본과 공동으로, 4.23 방콕에서 개최되는 “개발 파트너십 확대화”가 전통 공여국, non-DAC회원국 및 수원국이 참여하여 원조 효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여국 및 수원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

- 아크라 각료급회의에는 OECD 사무총장, Zoellick 세계은행 총재 및 각국의 장관급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0년 우리나라의 OECD/DAC 가입을 앞두고 우리의 대외 원조 제공에 대한 visibility를 제고하고, 원조 효과제고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에서 우리 측에서도 고위급 인사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봄.

- 아울러, 금번 회의 시 DAC 사무국은 아크라 회의 준비를 위한 예산이 약 60만 불 이상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여국의 지원을 호소한 바, 우리나라가 일정액(예: 약 10만 불)을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현재 7개 DAC회원국 및 EC가 자발적 기여금을 서약한 상태)

- 또한, DAC 가입 예정국이면서 신흥공여국인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아크라회의의 핵심적인 산출물인 아크라 행동계획(AAA) 작성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II.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를 계기로 각국의 아크라 각료급회의 준비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08.5월에 개최되는 OECD/DAC 고위급회의(HLM)에서도 아크라 각료급회의가 가지는 정치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원조정책담당부처는 물론 KOICA, 수출입은행 등 원조집행기관이 참여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AAA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하고, 각종 준비회의제기에 이를 반영해 나가는 노력 필요

Ⅲ. 상세 논의 내용

1. 세션 1: 아크라회의 관련 주요정보 (Input to the HLF-3)

가. 사무국 배경 설명 요지

1) 아크라 각료급 회의 (HLF-3)

■ 개최의의

- 2005 파리선언 이행에 관한 중간점검 및 2011년 이후의 원조효과 관련 주제논의
- 도 하 개발 재 원 회 의 (financing for development) 이전의 각료급 포럼

■ 회의일정 및 구성

- '08.9.2 본회의(Plenary session) 및 3개 라운드테이블(RT) 회의
- '08.9.3 6개 라운드테이블 회의
- '08.9.4 장관급회의
- 홍보섹션(market place)은 회의기간동안 계속 개최
- 관련 기본자료 : 2008 파리선언 설문조사

보고서, 파리선언 평가보고서, 성과보고서(progress report), '시민사회와 원조효과' 보고서 및 '더블린+1 회의결과', 아크라행동계획(AAA)

2) 주요 배경문서(보고서) 및 준비일정

■ 2008 파리선언 설문조사

- 개요 및 구성

- 2008년 1월 56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실시
- 4.2 현재 캄보디아, 가나 등 25개국으로부터 설문조사 결과 접수
- 2008 파리선언 설문조사 결과는 ① 주요결과에 대한 개요(overview) 및 ② 개별 수원국에서 원조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국별 검토(country chapter) 두 부분으로 정리될 예정

- 향후 일정

- 중간보고서 작성(5월말), 개요부분 발표(7월초), 개요부분 최종본 제출(8월), 국별검토(country chapter) 작성완료(10월)

■ 파리선언 이행에 대한 평가보고서

- 개요 및 구성

- 파리선언이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평가보고서는 ① 파리선언이행에 대한 수

원국 평가(10개국), ② 공여국에 대한 평가
(11개국), ③ 주세별 연구(4개)로 구성

런 이슈(cross cutting issue)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향후 일정

- 평가보고서 수정안 작성(4.14), 평가보고서
최종안 작성(5.9), 평가보고서 확정(7.1)

■ 원조효과 성과보고서(progress report)

- 개요 및 구성

- 성과보고서는 파리선언 이행에 관한 다수
의 작업반, 워크숍,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파리선언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
는 것이 목적으로 현재 초안 작성 완료
- ① 현재까지의 실천가능한 주요 교훈
(lesson) 및 메시지로 구성될 파트 I, ②파
리선언 5개 원칙의 이행 및 새로운 이슈를
언급한 파트 II로 구성

- 향후 일정

- 동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담
당자에게 의견 제시(4월중), 파트 I 초안 작
성, 파트 II 수정(5월), 최종본 확정(7월말)

- 기타 : '시민사회의 원조효과' 보고서는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노
력에 대하여 논의하고, 3월 런던에서
개최된 더블린+1 회의에서는 인권,
성 평등, 환경 문제 등 다양한 개발관

나. 주요 발언요지

- (미국) '설문조사 보고서'와 '파리선언 평가 보
고서'와의 차이점에 대한 가나 측 질문에 대하
여, 파리선언 모니터링 작업반(Joint Venture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의장
인 George Carner는 두 보고서는 파리선언을
각각 다른 시각에서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함.
설문조사는 파리선언 12개 지표(indicator)에
대한 양적(quantitative)인 현황분석(what is
happening)인 반면, 평가보고서는 파리선언
이행에 관한 더욱 광범위한 분석으로 현상의
원인과 요인분석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
라고 설명

- (남아프리카) 성과보고서가 OECD/DAC의 작
업반회의 결과 위주로 작성되어 수원국의 연구
결과나 시민사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
은 점을 지적

-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아프리카개발은행, 뉴
질랜드, 벨기에 등은 설문조사 결과와 파리선
언 평가보고서가 독립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만, 양 보고서 담당자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며, 성과보고서 등에서 조화
(harmonize)및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 제시

- (일본) 성과보고서에 파리선언관련 지역모임 (regional consultation)의 회의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모임의 결과 및 수원국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IMF, WB 등) IMF는 성과보고서 내용이 2005년 파리선언이후 진전된 점(progress)은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너무 규범적인 (normative) 내용위주로 작성된 데 대하여 실망감을 표명하며, 동 보고서를 파리선언에 대한 내용과 그 이후의 진전된 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세계은행(WB)도 동 보고서에 더 많은 데이터 및 증거 (evidence)를 포함할 것을 요구
- (한국) 성과보고서의 ‘9.원조체제 (aid architecture)’ 부분에 non-DAC 국가들의 분류(grouping)에 대해 재고하여야 하며(서면으로 우리입장 제시 예정), 동 보고서에 더욱 다양한 입장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 제기
- (독일) 가나 아크라 각료급회의가 참가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 예를 들어 아직까지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고, 파리선언 이행을 제약하는 점은 무엇인지에 관한 핵심 메시지(key message)의 전달이 필요하고, 이러한 메시지는 5월 고위급회의(HLM)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 지적
- (영국) DFID는 공여국-수원국간 상호책임성 (mutual accountability)을 개선할 수 있는 기제(mechanism) 및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회의참가국에 배포하고 영국은 상호책임성에 관하여 독일과 협력하고 있음을 설명
- (세네갈 등 수원국) 세네갈, 우간다 등은 설문조사, 성과보고서, 아크라 행동계획(AAA) 등이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경험적인 증거 및 현실성 있는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제시
- (Jan Cedergren 작업반 의장) ‘설문조사 보고서’는 2005 파리선언의 12개 지표에 대하여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평가보고서’는 현 상황의 원인 분석 등 양질의(qualitative) 분석을 시행하고, ‘성과보고서’는 상기 보고서를 포함, 지역적 협의 프로세스, 작업반회의 등의 결과들을 요약하면서 종합하는 보고서가 되어야 하고, ‘아크라 행동계획’은 동 보고서들의 성과, 문제점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요약 설명

2. 세션 2: 아크라회의의 주요결과 (Outcome of the HLF-3)

가. 사무국 배경 설명 요지

1) 원탁회의(Roundtable)

- 원탁회의는 아크라 각료급회의 시 9.2-3(2일) 간 실시되며 주제별로 9개로 구성

- 원탁별로 공여국(기관) 및 수원국별 각 1명씩 공동의장을 수입

- 원탁회의 주제: RT1: 수원국의 주인의식, RT2: 원조일치, RT3: 원조조화, RT4: 성과를 위한 관리, RT5: 상호책임성, RT6: 시민사회 및 원조효과, RT7: 취약·분쟁국가의 원조효과성, RT8: 상호책임성, RT9: 원조체제

- 향후일정 :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 워크숍(5.15), 원탁회의 지역준비 워크숍(6.6 이전 완료), 원탁회의 결과보고(9.20 이전 완료)

2)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ction Agenda)

■ 개요

- 아크라행동계획은 파리선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 선언에 부가적인 개념으로 2005 파리선언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임

- 동 아크라행동계획(AAA) 관련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수원국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기존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확대, Consensus Group을 구성할 예정임

- (향후 주요 검토일정 : 초안에 대한 공여국·수원국 검토의견 제출(4.18), 수정안 작성(6.12), 최종본 완료(7.20))

나. 주요 발언요지

- (TMF) 아크라행동계획 초안에는 빈곤감소전략(PRSP)과 국가개발 전략에 대한 언급이 빠졌고, 공여국 중심에서 기술됨.

- (가나) 아크라회의는 수원국이 원조관련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수원국들이 아크라행동계획에 관심을 갖고 수원국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네덜란드 등)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등 대부분 공여국 및 수원국은 아크라행동계획 초안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불분명하며, 파리선언 이후 그간의 성과에 관한 내용이 없고, 충분히 야심찬(ambitious) 메시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

- (한국) 공여국수의 증가가 긍정적 측면(원조규모 확대)과 도전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감안, 공여국간 보완성 논의가 원조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함. 특히, 원조분업은 공여국간 비교우위 차원에서 정의되어서는 안 되고, 수원국의 개발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판

단기준에서 접근해야 함. 따라서, 개발협력을 공급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공여국간 ‘원조 분업’은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높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함.

■ (멕시코 등) 멕시코, 이탈리아, UNDP 등 일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아크라행동계획 초안에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등 원조효과에 관한 non-DAC 국가들의 노력이 빠졌으며 아크라행동계획에 non-DAC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 (세네갈 등) 체코, 캐나다, 세네갈 등 일부 공여국 및 수원국은 아크라행동계획에 국제적으로 동의되지 않은 ‘원조에 관한 EU국가들의 행동지침(EU code of conduct)’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EC 등) EC,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원조 분야에서 EU 국가들이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how to make it happen)에 대하여 일종의 자극(source of inspiration)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크라행동계획에 EU code of conduct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EU code of conduct를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기본원칙이나 개념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

■ (덴마크 등) 덴마크, 아일랜드는 원조효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원조효과는 빈곤감소, 개발효과(development effectiveness)등의 목적과 밀접히 관련이 있으므로 그러한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여국과 수원국이 원조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으로(collectively)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아크라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남아공) 아크라행동계획 초안에는 수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수원국이 제시한 관심이슈(conditionality, 원조의 비구속화, 인센티브, 공여국간 원조의 분업, 예측가능성, 수원국의 역량개발)및 개발관련 이슈(cross-cutting issue) 반영이 미흡함.

■ (Jan Cedergrén 작업반 의장) 의장은 아크라행동계획과 관련한 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함.

- 수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보다 야심찬(ambitious) 행동계획이 필요함. 아울러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현 원조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함.

- 공여국 중심의 언어를 피하고, 기술적인 측

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여야 함.
아울러, 언론매체 및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파리선언의 5개 원칙과 수원국이 제시한 6가지 이슈(conditionality, 원조의 비구속화, 인센티브, 공여국간 원조의 분업, 예측가능성, 수원국의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원조효과성과 관련하여 그간의 성과, 방해물(bottlenecks),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가 설문조사, 평가, 성과보고서 등 증거에 기반을 두어야 함.
- 더욱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필요
- 서문은 아크라행동계획 및 파리선언을 개발의 맥락에서 다루어야 함.
- ‘향후 방향’ 부분은 더욱 야심차고(ambitious) 구체적이어야 함.
- 성 평등, 인권, 환경 등 개발관련 다양한(cross cutting issue) 이슈를 포함해야 함.
-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 DAC 국가와 non-DAC 국가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non-DAC 국가를 위한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함.
-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행동 계획은 간략(4-5 페이지)해야 함.

3. 세션 3: 아크라 각료급회의 준비 (Preparation for the HLF-3)

가. 사무국 배경 설명 요지

: 아크라행동계획 협의과정

(AAA consultation process)

- 아크라행동계획(AAA)에 대한 검토는 DAC 고위급회의(HLM), 다양한 지역적 협의 프로세스, 작업반회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6.12 수정안, 7.20 최종본이 완료되도록 추진 예정

- 아크라 각료급회의 준비관련 지역워크숍 결과 및 논의사항은 5.27까지 원조효과 작업반회의 의장에게 전달 요망

- 행동지향적이고(actionable), 야심차며(ambitious), 구체적인(concrete) 행동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AAA 초안과 함께 공여국 및 수원국의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기대수준(level of ambition)을 반영한 menu of option을 작성, 논의의 기초로 제시할 계획(동 menu에는 각 분야별로 행동계획의 기대수준을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국이 이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제시)

■ 지역적 준비회의

- 태평양지역(4.4-7, 피지), 동남아시아(4.21-22, 방콕), 남아시아지역(5.5-6 방콕),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5.8-9, 방콕), 아프리카 지역(4.28-30, 르완다 키갈리)

- 개발 파트너십 확대대화(4.23, 방콕)

- 기타 관련회의 : WB-IMF Spring 미팅(4.12-13), OECD-DAC 고위급회의(5.21-22), UN 개발협력포럼(6.30-7.1)

나. 주요 발언요지

- (IMF 등) IMF, OECD 등은 5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고위급회의(HLM)를 아크라각료급회의에서 전달할 주요 정치적인 메시지에 대해 논의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함. 아크라행동계획은 현 상황에 도전하여(challenging) 극복할 수 있는 이슈(예: 원조의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동 이슈는 고위급 수준의 토론 및 정치적 해결이 필요함.
- (UNDP 등) UNDP, 아프리카개발은행은 4.28-30(3일)간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지역 아크라 각료급회의준비 워크숍에 대한 준비상황을 소개하고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 (IDB, 콜롬비아) 6.5-6(2일)간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워크숍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공여국 및 수원국의 참여를 요청함.

- (한국, 일본) 4.23 방콕에서 "개발 파트너십 확대 대화"를 한-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동 회의는 특히 원조체제(aid architecture) 관련 원탁회의에 기여할 것이므로 전통공여국, 신흥공여국, 수원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4. 세션 4: 아크라 각료급회의 구성

(Organization of the HLF-3)

가. 사무국 배경 설명 요지

- 아크라 회의는 각료급/고위급회의(ministerial session), 9개 원탁회의(Roundtable), 홍보섹션(marketing place)으로 구성
- 홍보섹션은 아크라 고위급회의의 3일간 진행되며, 파리선언 5개 원칙관련 포스터 제작 등이 필요하며, 회의 마지막 날(Day 3) 온라인 투표에 의한 5개 분야별 시상식이 실시될 예정

나. 주요 발언 요지

- (Jan 의장) 각국의 각료급 대표들이 아크라 회의에 참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되지만 모든 대표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함.

- (TMF 등) 각료급 대표들이 모여서 아크라행동 계획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제시
- (미국, 캐나다) 현실적으로 아크라 고위급회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 회의 개최 전에 아크라 행동계획에 대한 동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